『中國學』第60輯 (2017.09)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17.60.60.3
pp.037-052 ISSN : 1229-9618

루쉰과 량스추의 번역논쟁에 관한 小考

이여빈*

【목 차】

1. 들어가며
2. 경역과 문학의 계급성
3. 번역어로서의 중국어
4. 나오며

【초록】

루쉰(魯迅, 1881-1936)과 량스추(梁實秋, 1903-1987)는 1920년대 말부터 1936년까지 번역에 관한 논전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두 사람은 우선 루쉰의 '억지번역'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경역(硬譯)'에 대해서 열띤 논의를 하다가 그 논쟁의 초점이 문학의 계급성 유무를 밝히는 것으로 옮겨갔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번역어로서 중국어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서구 언어의 문법으로 중국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각자가 주장하는 해결방식은 전혀 달랐다.

루쉰은 평소 혁명가로서의 역할을 자임한 것처럼 중국어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급진적인 방식으로 개혁하고 아울러 중국인의 사유방식까지도 개혁되기를 바랐다. 이에 반해 량스추는 자신의 인성론에서 강조한 바인 문학은 문학 자체로 기능해야지 어떠한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번역 또한 번역 자체로 독자의 이해를 돕는 기능에 충실해야지 다른 목적을 위해 그것이 변용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본고에서는 두 사람의 번역논쟁을 통해 이와 같은 각각의 번역관이 어떤 방식으로 투영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키워드】 루쉰, 량스추, 경역, 문학의 계급성, 번역어로서의 중국어

* 순천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시간강사 (sjseraph@daum.net)

1. 들어가며

1919년 5·4신문화운동은 반봉건과 반제국주의를 기치로 내걸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서 번역활동은 자연스럽게 신문화운동의 일부가 되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었다. 그 과정에서 번역에 관한 논쟁이 몇 차례 벌어졌는데, 이를 통해 당시 지식인들이 번역에 대해 어떠한 관념을 가졌는지, 또한 그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한 목표는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루쉰(魯迅, 1881-1936)과 량스추(梁實秋, 1903-1987)[1]는 1920년대 말부터 1936년에 루쉰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각종 문학적 이슈를 둘러싸고 첨예한 논전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두 사람의 논전 가운데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번역논쟁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는 각각의 번역관을 연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문학사에 있어서도 연구되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발표된 한국 논문 가운데 루쉰과 량스추의 번역논쟁을 주제로 한 논문은 찾을 수 없었으며, 대부분은 둘의 번역논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루쉰의 '경역(硬譯)'[2]이라는 특수한 번역관을 들여다보기 위한 근거로서 기능하였다. 그리하여 논쟁의 과정 역시 량스추보다는 루쉰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3] 중국 논문 중에는 이 둘의 번역논쟁을 주제로 한 논문이 몇 편 있는데, 이들 논문은 비교적 짧은 편폭의 글로 번역논쟁의 과정과 각각

---

1) 량스추는 항전시기에 '자산계급문학의 대표'로 낙인찍혀서 중국 현대문학사에서 그 문학적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다가 1980년대 후반에 비로소 복권된 인물이다. 그는 1920년대 후반 혁명문학 논쟁 시기에 문학을 계급투쟁의 도구로 삼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루쉰을 비롯한 좌익인사들과 격렬한 논전을 벌였고 루쉰에 의해 '집 잃은' '자본가의 힘없는 주구'라고 비판되었다. 특히 그는 민족구망이라는 역사적 사명이 그 무엇보다 강조되던 항전시기에 무조건 항전과 관련된 글만을 쓰고 발표하기보다는 항전과 관련이 없는 글이라도 문학적으로 진실하고 유창하다면 발표할 수 있다고 하는 '항전무관론(抗戰無關論)'을 주장함으로서 문예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게 되었다. 결국 1942년에 마오쩌둥(毛澤東)이 「연안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에서 량스추를 '자산계급문학의 대표'로 단정해버렸고, 그 후 그는 문예계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었으며 1949년에 타이완으로 건너갔다. 이후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면서 중국 정부가 문학을 정치의 부속품으로 인식하던 좌편향적 문화정책을 다원화함에 따라 량스추는 문학계에서 복권되었고 그동안 발표되지 못했던 그의 글 또한 중국 대륙에서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2) '경역'은 '무리한 번역'(한병곤, 「혁명문학논쟁 시기 노신의 번역」, 『중국인문과학』, 제12호, 중국인문학회, 1993), '축자역(逐字譯)', '곧이곧대로 번역하기'(구문규, 「루쉰의 문예이론 번역의 의미고찰:『고민의 상징』번역에 주목하여」, 『중국학논총』, 제40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3.), '억지번역'(이보경, 「루쉰의 번역관과 비균질적인 세계의 발견」, 『중국어문논역총간』, 제36호, 중국어문논역학회, 2015.) 등으로 번역되었다. 본고에서는 문자 그대로인 '경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3) 손지봉의 「루쉰(魯迅)의 번역활동과 번역방법 연구—경역(硬譯)을 중심으로」(『통역과 번역』, 제16권: 제2호, 한국통역번역학회, 2014, pp.59-85.)와 이보경의 「루쉰의 번역관과 비균질적인 세계의 발견」(위의 책, pp.123-147.)이 대표적이다. 손지봉의 글에서는 루쉰의 번역활동을 각 시기별로 나누고 번역방법으로는 직역, 경역, 중역, 재번역에 대해 서술하였다. 특히 루쉰이 경역을 옹호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당대의 최선의 번역방법이라고 하면서 시대성을 강조하며, 당대 사상과의 연계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했음을 밝혔다. 이보경의 글에서는 비균질적인 국민성과 중국어에 대한 루쉰의 인식, 그리고 그의 '이언어 말걸기'로서의 억지번역에 대해 서술하였다.

의 주장에 대한 논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논리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4)]

주지하다시피 루쉰은 평생 동안 번역을 매우 중시했으며 스스로도 수많은 외국작품을 번역하였다.[5)] 량스추 역시 1931년에서 1968년까지 서른 해를 훌쩍 뛰어넘는 기간 동안 혼자서 40권의 셰익스피어 전집을 번역한 것 외에도 1928년 7월에 출판된 Max Beerbohm의 『행복한 위선자』를 필두로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피터팬』, 『폭풍의 언덕』, 『동물농장』 등 여러 편의 서양 명저를 번역하였다. 이렇듯 당시 두 사람은 각자 왕성한 번역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번역에 관해서도 분명한 원칙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루쉰과 량스추의 번역에 관한 관점을 두 사람의 번역논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두 사람의 관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두 사람의 번역에 관한 논전의 양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며 나아가 중국 문학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경역과 문학의 계급성

문학계에서 이미 명성을 떨치고 있던 루쉰에 비해 22살이나 어린 량스추는 1920년대 초에 淸華대학 학생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1925년에 귀국한 후 『學衡』과 『新月』에서 활동하였고, 1926년 3월 27일에 「현대중국문학의 낭만적 추세(現代中國文學之浪漫的趨勢)」라는 글을 발표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 글에서 량스추는 기본적으로 중국 문학은 新·舊가 아닌 中·外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면서 5·4신문화운동이 극단적으로 외국의 영향, 특히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았음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친 나머지 퇴폐주의 혹은 가짜 이상주의로 흐를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신문학의 낭만주의자들이 난국을 탄식하고 고통 받는 백성을 동정하기에 이러한 동점심이 전세계로 확대되어 '약소민족의 문학'과 '파괴된 민족의 문학', '비전문학(非戰文學)'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특히 이러한 "인도주의는 이성의 선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6)]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신문학의 낭만주

---

4) 劉全福의 「魯迅, 梁實秋飜譯論戰焦點透析」(『中國飜譯』, 第3期, 中國翻譯協會, 2000, pp.56-60.)에서는 두 사람의 번역에 관한 글을 통해 번역의 표준문제, 번역과 중국어의 발전문제, 중역문제에 대해 서술하였다. 胡翠娥와 李云鶴의 「殊途不同歸: 魯迅與梁實秋飜譯思想比較」(『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第36券:第4期, 解放軍外國語學院, 2013.07, pp.78-83.)에서는 경역에 관한 두 사람의 논전을 서술하고 루쉰과 량스추의 번역사상을 간단하게 서술하였다.

5) 사실 『루쉰전집』에 번역 원문을 포함한다면, 『루쉰전집』의 가장 많은 부분을 바로 번역이 차지할 것이다. 그것은 번역 원문이 실린 38년판 『루쉰전집』(전20권)의 절반이 번역이었던 데서, 58년판 『루쉰역문집』(전10권)의 경우 전집과 분리된 것으로 이 역시 38년판과 동일하게 절반이 번역이었던 데서 알 수 있다. 이후 81년판에는 저작 외에도 일기와 서신을 포함하여 58년판 전집보다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번역은 루쉰의 전체 작업 가운데 약 3분의 2를 점하고 있다. 번역은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된 뒤 혹은 처음부터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는데, 재판된 것을 제외하더라도 단행본 약 33권의 분량에 달한다. 루쉰 저,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부록 「『역문서발집』에 대하여」, 『루쉰전집』 제12권, 그린비출판사, 2014, p.761.

6) 梁實秋, 『梁實秋文集』編輯委員會 編(이하 생략), 「現代中國文學之浪漫的趨勢」, 『梁實秋文集』 第一卷, 鷺江出版社, 2002, p.45.

의자들이 “인력거꾼의 생활이 불쌍하고도 존경할 만하며 노래하고 눈물지을 만하다”7)고 여긴다고 하였는데, 그가 이 인력거꾼을 낭만주의자들이 지나치게 동정하는 대표적인 대상으로 삼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인력거꾼은 루쉰이 1919년 12월에 발표한 「작은 사건(一件小事)」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루쉰은 어느 작은 사건으로 인해 한 인력거꾼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 량스추가 인력거꾼을 자신의 글에서 그렇게 언급한 것은 루쉰을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친 신문학의 대표적 낭만주의자라고 비판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루쉰의 심기를 거슬리게 하였던 것이다.

이듬해 4월 8일에 루쉰은 황푸(黃埔)군관학교 강연회에서 발표한 「혁명시대의 문학(革命時代的文學)」과 12월 21일에 상해의 지난(暨南)대학에서의 강연회에서 발표한 「문예와 정치의 기로(文藝與政治的歧途)」에서 량스추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앞서 비판하였던 ‘인력거꾼’을 언급하여 그에게 “사회를 묘사하는 것을 매우 깔보는 문학가”8)라고 하면서 조소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에 량스추는 같은 해 6월에 쉬단푸(徐丹甫)라는 필명으로 시사신보(時事新報)에 「북경문예계의 유유상종(北京文藝界之分門別戶)」이라는 문장을 발표하여 루쉰에게 시비를 걸었다. 우선 “루쉰 선생의 장점은 그의 날카로운 필치에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칭찬할 만한 것이 없다”9)고 하면서 루쉰을 “소설가”이자 “잡감가(雜感家)”10)라고 칭하였다. 특히 루쉰을 “‘신보(申報)’ 부간의 특별계약 저술자”11)라고 하면서 북경 문예계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루쉰은 이미 한커우(漢口)로 갔다고 비아냥거렸다. 이 시기 무한정부는 공산당을 포용하였지만 루쉰은 반공청당(反共淸黨) 지역에 있었기에 이 글은 루쉰의 감정을 상하게 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두 사람의 논쟁태도가 이미 호의적이지 않게 되었을 때, 바로 번역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1929년 9월 10일 『신월』제 6,7기 합간의 앞면에는 량스추의 「문학에는 계급성이 있는가?(文學是有階級性的嗎?)」라는 글이, 뒷면에는 「루쉰 선생의 ‘경역’을 논함(論魯迅先生的“硬譯”)」이라는 글이 실렸는데, 이 두 편의 문장으로 말미암아 루쉰과 량스추 번역논전은 본격적인 서막을 열게 되었다.

「문학에는 계급성이 있는가?」라는 글은 두 사람이 줄곧 논쟁을 벌여온 ‘문학이 영구불변하는 인성을 묘사해야 하는가’하는 주제와도 관련된다. 량스추는 이 글에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유전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며 경제적 환경도 다르”12)지만 그들의 인성은 결코 다르지 않아서 “생로병사의 무상함을 느끼고 사랑에 대한 요구와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윤상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심신의 유쾌함을 구하고자 한다”13)고 하여 보편적인 인성이 같기에 문학 또한 경계가 없다고 하면서 문학의 계급성을 부정하였다. 량스추는 이와 같이 사람은 보편적인 인성을 가지고 있으며 문학이란 바로 가장 기본적인 인성을 표현하는 예술이

7) 상동.
8) 魯迅, 「文藝與政治的歧途」, 『魯迅全集』, 第七卷, 人民文學出版社, 2005, p.116.
9) 梁實秋, 「北京文藝界之分門別戶」, 위의 책, 제6권, p.353.
10) 상동.
11) 梁實秋, 「北京文藝界之分門別戶」, 위의 책, 제6권, p.354.
12) 梁實秋, 「文學是有階級性的嗎?」, 위의 책, 제1권, p.322.
13) 상동.

기에 “문학의 제재를 한 계급의 생활현상의 범위 안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말이지 문학을 너무 천박하고 협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14]이라고 강조하였다.

그가 보기에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론가들이 문학을 ‘무기’로 간주하는 것은 바로 문학을 선전품으로 간주하여 일종의 계급투쟁의 도구로 여긴다는 것이다.[15] 그는 또한 정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작품이 부족함을 꼬집고, “광고는 보고 싶지 않으니 상품의 품질을 보여 달라”[16]고 외친다. 이 글을 통해 량스추가 주장한 인성론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데, 그는 줄곧 “문학작품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성을 대상으로 삼고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은 영구하고 보편적”[17]이라는 인성론의 입장에서 문학을 정의하였다. 결국 그는 각종 외부의 극단적인 세력이 문학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문학을 수단화하는 것을 경계하여 이성으로써 욕망을 통제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18]

또한 「루쉰 선생의 ‘경역’을 논함」에서는 루쉰의 번역서 『예술론(藝術論)』과 『문예와 비평(文藝與批評)』에서의 억지스러운 번역, 즉 ‘경역’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는 우선 ‘사역(死譯)’과 ‘곡역(曲譯)’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루쉰의 번역을 ‘사역’이라고 폄하하였다. 무엇이 ‘사역’인가에 대해서는 천시잉(陳西瀅)의 말을 인용하였다. “비단 자구의 순서뿐만 아니라 한 글자도 더해서는 안 된다. 한 글자도 먼저 쓸 수 없고 한 글자도 나중에 쓸 수 없으며, 번역이라고 명명하지만 ‘번역한 것이 번역하지 않은 것과 같다’”[19]는 것이다. 그리고는 곡역과 사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 곡역은 물론 해서는 안 된다. 원문에 대해 너무 충실하지 않아서 정화를 쓸모없는 것으로 번역해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권의 책을 절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곡역할 수는 없으며 한 쪽에 몇 군데 곡역한 부분을 발견했을 지라도 어쨌든 곡역하지 않은 부분도 있게 마련이다. 게다가 일부분의 곡역이 잘못되어도 어쨌든 당신에게 잘못된 번역을 해주는 것이라서 이 잘못된 번역은 정말 폐해가 끝이 없을 것이지만, 당신이 읽을 때에는 어쨌든 상쾌하게 한다. 사역은 다르다. 사역은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죽은 번역으로, 읽어도 읽지 않는 것과 같고 시간과 정력을 허비한다. 하물며 곡역의 폐단을 범하는 동시에 결코 사역의 폐단을 범할 수 없지만, 사역은 오히려 어떤 때는 동시에 곡역하는 것이 무방한 경우임에랴. 그리하여 나는 물론 우리가 곡역을 극도로 싫어하지만 사역의 풍조 역시 절대로 오래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20]

량스추는 ‘곡역’과 ‘사역’이 둘 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곡역’은 어쨌든 독자로 하여금 상쾌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사역’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은 채 시간과 정력을 낭비할 뿐이

---

14) 梁實秋, 「文學是有階級性的嗎?」, 위의 책, 제1권, p.323.
15) 梁實秋, 「文學是有階級性的嗎?」, 위의 책, 제1권, p.324.
16) 梁實秋, 「文學是有階級性的嗎?」, 위의 책, 제1권, p.325.
17) 梁實秋, 「現代文學論」, 위의 책, 제1권, pp.400-401.
18) 량스추는 하버드 대학에서 신인문주의(Neo-Humanism)의 대표자인 어빙 배빗(Irving Babbitt, 1865-1933) 교수의 수업을 듣게 되면서 그의 영향을 받아 신인문주의를 학습하고 배빗의 ‘이원인성론(二元人性論)’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 ‘이원인성론’이란 이성, 즉 ‘내적 통제(inner check)’로써 욕망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량스추의 모든 문학이론과 문학비평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 梁實秋, 「論魯迅先生的“硬譯”」, 위의 책, 제1권, p.347.
20) 상동.

라고 일침을 가한다. 그리하여 그는 루쉰의 번역서 『예술론』과 『문예와 비평』 가운데 극단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몇 구절을 찾아서 그의 번역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한다.[21] 량스추는 루쉰의 번역문 속의 "문자가 심오하여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책을 읽는 것은 마치 지도를 보는 것과 같아서 손가락을 펴고 구법의 맥락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22]고 하였다. 한편 루쉰은 「『문예와 비평』 역자 부기(『文藝與批評』譯者附記)」에서 자신의 번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

> "번역본으로부터 보건대 루나차르스키의 논설은 이미 매우 분명하고 통쾌하다. 하지만 역자의 능력부족과 중국어 본래의 결함으로 인해 번역을 다하고 보면 난삽하고 심지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또한 정말 많다. 만약 늑구(仂句)를 나누면 또한 원래의 날카로운 어감을 잃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경역 말고는 '속수무책'이라는 이른바 '출로가 없는 방법'밖에 없다. 남은 유일한 희망은 독자가 억지로라도 꿋꿋이 읽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23]

량스추는 특히 이 글에서 루쉰이 "역자의 능력부족과 중국어 본래의 결함으로 인해 번역을 다하고 보면 난삽하고 심지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또한 정말 많"은데, 결국 "독자들이 억지로라도 꿋꿋이 읽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한 말에 대해 비판한다. 그는 "우리는 "억지로라도 꿋꿋이" 읽는 수밖에 없지만 얻는 것이 없다"[24]고 하면서, 그렇다면 "'경역'과 '사역'에 무슨 구별이 있겠냐"[25]며 반문한다. 한편 량스추 역시 중국 문장과 외국 문장이 달라서 어떤 구법은 중국어에 없기 때문에 번역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루쉰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구법(句法)을 변환시켜서 독자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무방하다"[26]고 하여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꿋꿋이 읽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루쉰의 견해와는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한편 위에서 량스추가 문제 삼은 루쉰의 「『문예와 비평』 역자 부기」에서 루쉰은 자신이 일본어 번역본을 텍스트로 삼아 번역했음을 밝히면서 "이 번역은 중역(重譯)의 중역(重譯)이다"[27]라고 밝히고, "예술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는 본래 중대한 문제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문

---

21) 루쉰의 번역본 가운데 량스추가 지적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這意義, 不僅在說, 凡觀念形態, 是從現實社會受了那惟一可能的材料, 而這現實社會的實際形態, 則支配着即被組織在它里面的思想, 或觀念者的直觀而已, 在這觀念者不能離去一定的社會底興味這一層意義上, 觀念形態也便是現實社會的所産. (盧那卡尔斯基, 『藝術論』, 大江書鋪, 1929年, p.7.)
問題是關于思想的組織化之際, 則直接和觀念形態, 以及産生觀念形態的生活上的事實, 或把持着這些觀念形態的社會底集團相連系的事, 是頗爲容易的. 和這相反, 問題倘觸到成着藝術的最爲特色底的特質的那感情的組織化, 那就極其困難了. (위의 책, p.12.)
內容上雖然不相近, 而形式底地完成着的作品, 從受動底見地看來, 對於勞動者和農民, 是只能給與半肉感底性質的漠然的滿足的, 但在對於藝術底化身的深奧, 有着興味的勞動者和農民, 則雖是觀念底地, 是應該敵視的作品, 他們只要解剖底地加以分解, 透徹了那構成的本質, 便可以成爲非常的大的教訓. (盧那卡尔斯基, 『文藝與批評』, 水沫書店, 1929年, p.198.)
22) 梁實秋, 「論魯迅先生的"硬譯"」, 위의 책, 제1권, p.349.
23) 魯迅, 「『文藝與批評』譯者附記」, 위의 책, 제10권, pp.329-330.
24) 梁實秋, 「論魯迅先生的"硬譯"」, 위의 책, 제1권, p.349.
25) 상동.
26) 상동.
27) 魯迅, 「『文藝與批評』譯者附記」, 위의 책, 제10권, p.328.

장은 결코 길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읽어도 마치 무언가 부족한 것 같다고 느끼게 된다"[28]고 하였다. 그가 원작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자신이 번역텍스트로 삼은 번역본에 문제가 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중역하는 본인 역시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이다. 바로 중역의 문제점을 인식한 것이다. 한편 그는『문예와 비평』가운데 제2편인「맑스주의자가 본 톨스토이(馬克斯主義者之所見的托尔斯泰)」 역시 일본의 번역본에서 중역한 것임을 밝히고 자신이 번역본을 발표한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웨이쑤위안(韋素園) 의 번역을 거론한다. 웨이쑤위안의 글은 원문을 직접 번역한 것으로, 루쉰이 보기에 "번역본에 때로 난삽한 부분이 나보다 적지 않지만 몇 구절이 더 많고 정확한 곳도 당연히 더 많다. 지금 나는 아직 이것에 근거해서 본 번역문을 고치지 않았지만, 뜻이 있는 독자들은 직접 참고해 보기 바란다"[29]라고 하여 원문을 직접 번역한 번역본 역시 자신의 번역본처럼 난삽한 곳이 있지만 직접 번역한 번역문이 더 자세하고 정확함을 인정하였다. 이 글의 마지막에는 번역을 다 하고 난 후에도 번역문이 난삽한 것은 자신의 역량 상 정말 어찌할 수가 없는 일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서, 누군가 자신의 잘못된 번역을 지적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상술한 량스추의「루쉰 선생의 경역을 논함」에 맞서서 루쉰은 1930년 3월에「'경역'과 '문학의 계급성'("硬譯"與"文學的階級性")」이라는 제목의 문장을 발표하여 앞서 량스추가 자신의 번역에 대해 '사역'이라고 비판했던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루쉰은 먼저 "량선생이 스스로 '억지로라도 꿋꿋이 읽었다'라고 여기지만, 도대체 그러했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가 문제이다"[30]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량스추가 스스로 모든 중국인을 대표하였지만 정말 그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가의 여부 또한 문제이다"[31]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루쉰이 량스추를 자신의 번역서를 이해하지 못할 수준으로 낮추어보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량스추의「문학에는 계급성이 있는가?」라는 글을 언급하면서 량스추의 계급성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특히 '프롤레타리아'라는 단어에 대한 량스추의 해석을 문제 삼았다. 량스추는 이 글에서 프롤레타리아에 대해서 "사실 사전을 뒤적여 보면, 이 글자의 함의는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으니, '웹스터 대사전'에 따르면 이렇다. 프롤레타리아는 국가에서 그저 아이를 낳을 줄 아는 계급이다!(적어도 로마시대에는 이러했다)"[32]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루쉰은 "사실 '아름다움'을 따질 필요도 없으니,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현재를 로마시대로 여기지 않을 것이며 현재의 프롤레타리아를 로마인으로 간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역자 중략) '사전(웹스터 사전)을 뒤적여보아'도 '얻는 게 없'겠지만, 중국인이 모두 그러하다고는 할 수 없다"[33]라고 하여 량스추를 조금의 상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그가 프롤레타리아를 그저 사전적 의미로만 접근한 점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였다. 루쉰이 특히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량스추의 정의를 지적한 것을 보면 량스추의 계급성을 문제 삼고자 한 그의 의중을 알 수 있다.

---

28) 상동.
29) 魯迅,「『文藝與批評』譯者附記」, 위의 책, 제10권, p.330.
30) 魯迅,「"硬譯"與"文學的階級性"」, 위의 책, 제4권, p.200.
31) 상동.
32) 梁實秋,「文學是有階級性的嗎?」, 위의 책, 제1권, pp.320-321.
33) 魯迅,「"硬譯"與"文學的階級性"」, 위의 책, 제4권, pp.200-201.

한편 루쉰은 이 글에서 줄곧 량스추와 신월파를 하나로 간주하고, 그 자신은 "신월사의 '저들' 중 한 명이니, 나의 번역이 량씨가 요구하는 조건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34]라고 하였다. 즉 자신이 량스추를 비롯한 신월파와 상대되는 대상이기에 량스추가 자신의 번역을 비판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루쉰은 자신의 번역이 사역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를 내재적 요인, 즉 번역 자체의 문제로 보지 않고, 외재적인 요인인 신월파의 번역에 대한 요구조건에 자신의 번역문이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루쉰은 자신의 번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충 설명한다.

> 나의 번역은 본래 독자가 '상쾌'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흔히 불편함을 안겨주고, 심지어 답답함과 증오, 분노를 느끼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읽고서 '상쾌해'질 거리라면, 신월사 사람들의 역서나 저서, 이를테면 쉬즈모 선생의 시, 선충원과 링수화 선생의 소설, 천시잉 선생의 한담, 량스추 선생의 비평, 판광단 선생의 우생학, 그리고 배빗 선생의 인문주의 등이 있다.[35]

루쉰은 이 글에서 자신의 번역이 량스추를 비롯한 신월파 구성원들처럼 '상쾌'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편함, 심지어 답답함, 증오, 분노를 느끼게 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루쉰은 글을 읽고서 상쾌함을 추구하는 부르주아가 아닌, 답답함과 증오 심지어 분노를 느끼는 프롤레타리아야 말로 자신의 경역의 대상임을 강조한다.

이어서 그는 "일본어는 구미와 아주 '다르지'만, 그들은 차츰 새로운 구문을 늘려서 옛 글에 비해 본다면 번역하기에 훨씬 편하면서도 원래의 세련된 뉘앙스를 잃지 않는데, 처음에는 '구문의 앞뒤 위치를 찾아야' 하는지라 사람들에게 '유쾌'하지 못함을 안겨 주었지만, 찾고 익숙해지다 보니 이제는 이미 동화되어 자신의 것으로 되었다"[36]고 하여 자신이 왜 '상쾌함'을 주지 못하는 번역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바로 일본어가 구미의 영향을 받아 자국어를 발전시킨 예와 같이 중국어 역시 번역을 통해 차츰 새로운 구문을 늘려서 '유쾌하지 못한 것'을 '유쾌하게' 동화시킬 수 있기를 바란 것이다.

한편 이 글에서 루쉰은 량스추가 자신의 글을 비판했던 내용을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따지고, 량스추와 신월파를 한데 묶어서 그들의 문학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심지어 그들의 정치적 경향까지도 언급하였다. 또한 이 글의 곳곳에서 량스추를 "중국의 새로운 비평가"[37], "오늘날은 원래 학자이기만 하면 모든 일과 연관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38],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39] 등으로 비판하였는데, 특히 그가 루쉰 자신이 번역한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론의 역서들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어리석고 나태하다고 조롱한다.

루쉰은 또한 량스추 등이 자신의 중역에 가지는 불만에 대해서 "량스추 선생은 번역하지

---

34) 魯迅, 「"硬譯"與"文學的階級性"」, 위의 책, 제4권, p.201.
35) 魯迅, 「"硬譯"與"文學的階級性"」, 위의 책, 제4권, p.202.
36) 魯迅, 「"硬譯"與"文學的階級性"」, 위의 책, 제4권, pp.203-204.
37) 魯迅, 「"硬譯"與"文學的階級性"」, 위의 책, 제4권, p.205.
38) 魯迅, 「"硬譯"與"文學的階級性"」, 위의 책, 제4권, p.202.
39) 魯迅, 「"硬譯"與"文學的階級性"」, 위의 책, 제4권, pp.200·204.

않고, 남을 '어중이 떠중이'라 일컫는 위인들도 번역하지 않는다"[40]고 하면서 자신은 "당분간은 남의 비웃음과 질책을 받더라도 일본어에서 중역하거나, 원문을 구해 일본어 역본과 대조하여 직역하는 수밖에 없을 듯하다"[41]라고 밝힌다. 루쉰은 자신의 중역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번역하지 않음을 비판하고, 계몽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 욕을 먹더라도 중역이나마 참고 번역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그리고는 글의 말미에 신월파가 주장하는 '엄정한 태도'와 '관용의 태도'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태도로 일관되어 있으며 그들의 이러한 방법은 "오직 힘이 서로 비슷하거나 못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42]이라고 비판한다.

루쉰은 앞서 『문예와 비평』 역자 부기에서 자신 역시 원번역문의 오자로 인해 잘못된 번역을 했음을 인정하였고, 누군가 자신의 잘못된 번역을 지적하고 고쳐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하지만 정작 량스추가 그의 잘못된 번역을 지적하여 고쳐주길 바랐을 때에는 오히려 그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량스추가 바랐던 번역문의 수정은 해주지 않았다. 만약에 루쉰이 량스추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수정했다면, 이 둘의 논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상술한 루쉰의 글이 발표되자 량스추는 「루쉰 선생께 답함(答魯迅先生)」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앞서 자신이 발표한 두 편의 문장인 「문학에는 계급성이 있는가?」와 「루쉰 선생의 경역을 논함」이 각각 독립적인 글이며 서로 조금도 관련이 없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그는 루쉰 선생이 "'경역'에 대해 변호를 하려고 했다면 그의 번역문의 절묘한 부분을 하나씩 말하여 알려주어도 괜찮을 것이다"[43]라고 하여 그가 자신의 수정요구에 답하지 않고 경역에 대해 억지스러운 변명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쉬워하였다. 아울러 량스추는 루쉰이 만약 '무산계급문학'을 변호하고자 했다면 왜 '무산계급문학'이라는 명사가 성립할 수 있는지 알려주어도 괜찮을 텐데, 그저 몇 마디 말로 자신을 조롱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루쉰이 자신의 문장을 반박하면서 오히려 『신월』 잡지와 신월파를 한데 몰아세워 폄하하였다고 하면서 다시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덧붙였다. 특히 량스추는 루쉰의 번역이 '난삽하고, 심지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까닭을 그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태함"[44], 즉 능력부족 때문임을 강조하면서 루쉰이 밝힌 난해한 번역의 원인인 '중국 문장 본래의 결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반문한다. 또한 문학에 있어서의 계급성 유무에 대해 루쉰에게 묻고, 그렇다면 그 자신은 도대체 어느 쪽에 서있는지, 박쥐처럼 두 쪽을 다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한다.

본 장에서는 루쉰의 경역이라는 번역방법에 대한 량스추와 루쉰의 해석이 어떤 맥락에서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고, 이로 인해 이들의 논쟁이 문학의 계급성의 문제로까지 확대된 경과를 고찰하였다. 루쉰은 자신의 경역이 죽은 번역, 즉 사역이라고 평가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

---

40) 魯迅, 「"硬譯"與"文學的階級性"」, 위의 책, 제4권, pp.215-216.
41) 魯迅, 「"硬譯"與"文學的階級性"」, 위의 책, 제4권, p.216.
42) 魯迅, 「"硬譯"與"文學的階級性"」, 위의 책, 제4권, p.217.
43) 梁實秋, 「答魯迅先生」, 위의 책, 제6권, pp.475-476.
44) 梁實秋, 「答魯迅先生」, 위의 책, 제6권, p.478. 이 말은 루쉰이 「'경역'과 '문학의 계급성'」에서 량스추가 자신이 번역한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론의 역서들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한 말을 그대로 량스추가 루쉰을 비판하면서 쓴 것이다.

고 경역의 대상을 프롤레타리아로 삼고 여건 상 직역이 어려우면 중역이라는 방식이라도 취하여서 독자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꿋꿋이 읽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량스추는 루쉰의 경역에 대해 억지로라도 꿋꿋이 읽는 수밖에 없지만 그 결과 얻는 것이 없다고 하여 그의 경역이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나태함으로 인한 것이라며 루쉰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또한 번역 논쟁이 격화됨에 따라 루쉰이 량스추 자신의 계급성에 대해 의문을 품자 량스추는 그렇다면 루쉰은 과연 어느 계급에 속하는지, 또한 문학에서의 계급성이란 존재하는가를 반문하기에 이른다.

3. 번역어로서의 중국어

앞서 언급한 「『문예와 비평』의 역자 부기」에서 루쉰이 자신의 번역이 난해한 이유로 꼽은 '중국 문장 본래의 결함'은 두 사람으로 하여금 번역어로서의 중국어는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

> 중국 사람의 성미는 언제나 타협과 절충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집이 너무 어두워 여기에 반드시 창문을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하면 모두들 절대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붕을 뜯어 버리자고 하면 그들은 곧 타협하여 창문을 만들자고 할 것입니다. 더욱 치열한 주장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언제나 온건한 개혁마저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백화문이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중국 글자를 폐지하고 로마 자모를 쓰자는 의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45]

루쉰은 항상 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타협과 절충을 좋아하는 중국인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온건한 개혁이 아닌 급진적인 혁명이라는 것이다. 그는 중국에 백화문이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글자를 폐지하자는 주장과 로마 자모를 쓰자는 등의 혁명적인 의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런 그에게 번역이라는 작업은 중국어에 대해서도 혁명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 자극제의 역할을 한 것이다. 특히 그는 번역을 통해 외부의 언어가 들어와서 중국에 새로운 어휘가 만들어지거나 기존 어휘에 변화가 생겨서 기존의 언어 체계와의 담론 질서에 균열이 발생하길 바랐다.

이와 같이 루쉰은 줄곧 중국어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기에 신문화운동 시기의 백화운동, 1920년대 서구식 백화문에 관한 토론, 1930년대 대중어에 관한 토론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시종일관 계몽과 현대화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중국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루쉰은 중국어의 어법이 정밀하지 않기에,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수고하면서 옛것, 다른 지방의 것, 외국의 것 등의 색다른 구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46]고 하여 중국어의 결핍된 부분을 외부적인 요소로서 보충하고 종국에는 그것을 중국화

45) 魯迅, 「無聲的中國」, 위의 책, 제4권, p.14.

하길 바란 것이다.

한편 루쉰은 서구화된 문법이 중국 백화에 들어온 주요한 원인이 결코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것"[47]임을 강조하면서, 중국어에 설사 상대적으로 안정된 어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점차 변화하고, 고쳐질 것이며, 새로운 규칙으로 메꿔질 것이라고 하는 등 진화론적 입장에서 이를 단언한다.

루쉰은 1932년 12월에 취추바이(瞿秋白)에게 쓴 「번역에 관한 통신-답신(關於飜譯的通信-回信)」을 발표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독자에 따른 번역어의 선택에 대한 루쉰의 고민의 흔적이 엿보인다. 루쉰은 번역의 대상을 '갑', 상당한 교육을 받은 자, '을', 대략이나마 글자를 아는 자, '병', 아는 글자가 거의 없는 자[48]로 구분하였다. 루쉰은 이처럼 '갑', '을', '병'으로 번역의 대상을 나누었고, 그중에 '병'은 독자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갑'과 '을' 또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번역한 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갑'에게는 "'순통하지 않더라도 충실할(寧信而不順)' 것"[49]을 주장하였는데, 그 의미는 "찻물에 만 밥을 먹듯이 몇 입에 삼키지 않아도 괜찮으나 이빨로 자근자근 씹어보아야만 한다"[50]는 것이다. '을'을 위한 번역방법으로는 "늘 새로운 단어, 새로운 어법을 그 안에 덧붙여야 한다"[51]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대중의 언어가 풍부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문예 번역의 경우 '갑'에게는 직역해 줄 것을 주장하여 가능한 한 많이 수입하여 소화시키고 그러고도 남은 찌꺼기는 내버려두길 바랐다. 그리하여 자신이 '다소 순통하지 않음'을 용인하는 것은 '방어'가 아닌 '공격'의 일종이기도 하다고 항변한다.

한편 번역어에 있어서 루쉰과 량스추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중국어의 낙후성에 대한 인식이다. 즉 루쉰은 앞서 서술하였듯이 중국어가 정밀하지 않은 언어라고 생각하였기에 서구화된 문법을 받아들여서 중국어를 개혁하고 나아가 중국인들의 사유능력 또한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에 반해 량스추는 중국어가 매우 진화한 언어라고 보았고 특히 전통문자에 대한 중요성 또한 간과하지 않았는데, 그는 중국 문자의 대장(對仗)과 평측(平仄)을 강조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대장을 짓는 훈련은 "아동의 연상과 문자를 부리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52]고 보아 이러한 "대장은 결코 완전히 인위적인 것이 아니며"[53] 거기에는 쌍을 이루는 것을 좋아하여 대칭을 강조하는 중국인의 '민족적 천성'이 크게 작용한다고 하였다. 량스추는 이와 같이 중국의 전통적인 문언문을 중시하였으며 나아가 서구 언어의 영향을 받은 현대 백화문과도 유기적으로 결합할 것을 주장하였다.

1933년 12월에 발표된 량스추의 「서구화된 백화문(歐化文)」에서는 '底', '地', '的', '地底', '地的' 등을 마구 쓴 서구화된 백화문에 반대하며 마치 유행이나 하듯이 지식인들이 이러한 글

---

46) 魯迅, 「關於飜譯的通信-回信」, 위의 책, 제4권, p.391.
47) 魯迅, 「玩笑只當它玩笑(上))」, 위의 책, 제5권, p.548.
48) 魯迅, 「關於飜譯的通信-回信」, 위의 책, 제4권, p.391.
49) 상동.
50) 상동.
51) 魯迅, 「關於飜譯的通信-回信」, 위의 책, 제4권, p.392.
52) 梁實秋, 「語言, 文字, 文學」, 위의 책, 제5권, p.260.
53) 상동.

자를 사용하여 문장을 쓰는 것에 일침을 가한다. 이 글에서 량스추는 언어학자들이 중국어의 문법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 “만약 문법의 간단함이 높은 단계의 진화적 현상이라면 중국어는 틀림없이 매우 진화한 언어”[54]라고 주장한다.

한편 그는 서구화된 백화문의 기원은 번역, 특히 ‘경역’과 관계된다고 하면서, “어떤 번역가는 게으르거나 바쁘거나 혹은 통하지 못하여 왕왕 맹목적으로 답습한 번역문을 쓴다”[55]고 하면서 루쉰에게 “경역대사(“硬譯”的大師)”[56]라는 별칭을 붙여준다. 그는 루쉰이 일본어로 번역된 책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중국어가 번역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느꼈기에 간신히 임시변통의 방법으로 경역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결국 서구화된 백화문은 루쉰의 경역과 그 형식은 다르지만 근본 취지는 같은 것이다.

또한 량스추는 여전히 루쉰의 ‘경역’에 대해 “번역하다가 실패한 증거이며 모범으로 삼기에 부족하다”[57]라고 보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량스추는 줄곧 루쉰의 경역에 대해 조금도 용인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다음의 단락에서 루쉰에 대한 량스추의 극단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 그러나 루쉰 선생은 잘못인줄 알면서도 계속 밀고 나가고, 나이를 믿고 거만하게 번역하여 경역 이론을 되는대로 지껄여서 그 번역한 예의 추함을 감추었다. 경역은 도리어 매우 유행하는 문체로 변하였다. 현재 몇 종류의 문예간행물을 읽어보면 억지번역하지 않은 번역본이 없으며 경역(서구화된 글)과 비슷하기만 하면 참신하고 뛰어난 격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외국어를 몇 자밖에 모르면서 경역에 젖어서는 붓을 들고 우물쭈물하고 손발을 절룩거리는 모양이 마치 서구화된 것 같다! 그 추악한 모습은 서양물이 든 불량소년이 서양옷을 입고 서양인의 자세를 따라하고 서양인의 말투를 흉내 내어 제 딴에는 흡족하게 여기는 것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58]

한편 루쉰의 경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하며 서구화된 백화문을 비판하는 량스추 역시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우리가 사고를 정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어의 문법이 우리 중국문자의 지나치게 함축적이고 몽롱한 병폐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59]라고 하여 루쉰과 마찬가지로 외국어의 문법이 중국어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또한 그는 문자와 문법이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중국의 문자와 문법이 서구 언어를 접촉하게 되면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임을 주지하였다.[60] 하지만 량스추가 보기에 이러한 문자와 문법의 문제는 언어학자들이 반드시 연구해야 하는 문제이며, 그 개혁은 점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

54) 梁實秋, 「歐化文」, 위의 책, 제1권, p.490.
55) 상동.
56) 상동.
57) 梁實秋, 「歐化文」, 위의 책, 제1권, p.491.
58) 상동.
59) 梁實秋, 「語言, 文字, 文學」, 위의 책, 제5권, p.263.
60) 梁實秋, 「歐化文」, 위의 책, 제1권, p.491.

> 문자와 문법은 원래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각국의 문자는 모두 각각의 역사적 배경과 습속의 인습이 있게 마련이다. 중국의 문자와 문법은 서구 언어를 접촉한 까닭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했는데, 아마도 피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언어학자들이 반드시 연구해야 할 문제이며 그 개혁은 당연히 점진적이어야 한다. 번역가는 아마 이 문제의 절박함을 가장 크게 느낄 것이며 또한 각종 시도를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만약 서구화를 부적으로 삼아 되는대로 얼버무려 책임을 때우려는 경역을 한다면 그야말로 스스로를 속이고 남도 기만하는 것이다.[61]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루쉰과 량스추 모두 문자와 문법이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서구 언어가 중국어의 부족함을 메꿔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중국어의 결함을 보완하는 해결방식에 있어서는 상반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는 점이다. 즉 루쉰은 자신이 주장하는 급진적인 계몽과 현대화를 위해 억지스러운 방식이라고 비판받는 경역을 사용하는 것도 불사하지만, 량스추는 서구의 언어와 함께 중국의 전통문자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중국어의 변혁이라는 이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풀어가야 할 과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4. 나오며

이상 루쉰과 량스추의 번역논쟁의 경과와 각각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물론 두 사람의 논전이 연계되어 전개된 경우도 있었고, 반드시 연계되어 전개되지는 않았지만 각자의 글에서 각각의 견해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논쟁과정을 살펴보면 두 사람은 거의 모든 방면에서 날카롭게 대립하고 심지어 상대방을 인신공격하면서 고의로 트집을 잡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전체 논쟁의 과정과 그들이 서로를 비판한 근거를 고찰해보면, 결국 문화와 문학에 대한 각자의 가치관이 번역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두 사람은 특히 경역이라는 번역방식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데, 이는 각자의 번역의 목적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루쉰은 “외국에서 불을 훔쳐 온 것은 스스로의 살을 삶기 위한 것이니, 맛이 더 좋아진다면 아마도 깨물어 씹는 자 역시 이로운 점이 더 많아질 것이고, 나 역시 육신의 수고를 허비하지 않은 셈”[62]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번역목적을 밝혔다. 그는 자신의 살을 태워서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번역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즉 번역을 통해 새로운 사상과 어휘 및 표현법을 들여와서 중국인으로 하여금 정밀하지 못한 자신들의 언어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스스로 쇠로 만든 방을 부수고 나오도록 돕고자 한 것이다.

량스추 또한 번역이라는 것이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위한 일임

---

61) 상동.
62) 魯迅, 「“硬譯”與“文學的階級性”」, 위의 책, 제4권, p.214.

을 인정하였다. 그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번역을 하다보면 작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으며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에 번역자가 가장 많은 이익을 얻게 마련이라고 강조한다.[63] 그는 또한 문화발전에 있어서 번역의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였는데, "본국의 문화를 발양하고 사상의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외국의 사조와 외국의 문예를 들여와서 본국의 작가와 학자를 자극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64]고 하였다. 그리하여 량스추는 번역을 학문도 아니고 예술도 아닌 일종의 독자의 이해를 돕는 '봉사(服務)'라고 간주하였고, 이를 위한 번역은 창조가 아닌 "겉만 바꾼 복제품"[65]이라고 보았다.

루쉰은 결국 계몽과 현대화라는 목적에 이르기 위해 새로운 사법과 구법을 창조하는 경역이라는 번역방식을 꿋꿋이 고수하였고 서구화된 문법을 통해 번역어가 발전되고 종국에는 중국어가 발전되길 바란 것이다. 량스추는 자신이 주장한 인성론에서 문학을 어떤 수단으로 삼지 않고 문학 그 자체로 간주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번역 또한 번역 자체로 간주하여 어떠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그가 생각하는 번역이란, 번역의 가장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목적인 독자의 이해를 위한 '봉사'이자 그들이 원본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겉만 바꾼 복제품"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사람의 확고한 번역관을 근거로 한 번역논쟁으로 인하여 당시 문학계에서는 직역과 의역, 그리고 중역의 문제, 문학의 계급성, 원문지향의 信과 독자지향의 順의 문제를 둘러싼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으며 이로써 그 논의의 범위가 번역계 뿐만 아니라 문학과 언어로까지 확대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과 함께 번역에 대한 수요 또한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각종 새로운 번역이론 및 연구 방법론이 생겨나는 가운데 두 사람이 번역에 관하여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쟁하여 얻어낸 문제의식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

63) 梁實秋, 「漫談飜譯」, 위의 책, 제5권, p.436.
64) 梁實秋, 「漫談飜譯」, 위의 책, 제5권, p.433.
65) 상동.

【참고문헌】

羅新璋,『翻譯論集』, 商務印書館, 1984.
梁實秋,『梁實秋文集』編輯委員會 編,『梁實秋文集』, 鷺江出版社, 2002.
高旭東,『在古典與浪漫之間』, 文津出版社, 2004.
_____,『梁實秋與中西文化』, 中華書局, 2007.
魯迅,『魯迅全集』, 人民文學出版社, 2005.
宋益喬,『梁實秋傳』, 百花文藝出版社, 2005.
嚴曉江,『梁實秋的創作與翻譯』, 北京師範大學出版社, 2012.
劉全福,「魯迅, 梁實秋飜譯論戰焦點透析」,『中國飜譯』, 第3期, 中國翻譯協會, 2000.
胡翠娥·李云鶴,「殊途不同歸: 魯迅與梁實秋飜譯思想比較」,『解放軍外國語學院學報』, 第36券: 第4期, 解放軍外國語學院, 2013.07.
김욱동,『번역의 미로』, 글항아리, 2011.
왕병흠 지음, 김혜림 외 옮김,『중국 번역사상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1.
루쉰,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루쉰전집』, 그린비출판사, 2014.
수잔 바스넷 지음, 윤선경 옮김,『번역의 성찰』, 도서출판 동인, 2015.
한병곤,「혁명문학논쟁 시기 노신의 번역」,『중국인문과학』, 제12호, 중국인문학회, 1993.
구문규,「루쉰의 문예이론 번역의 의미고찰:『고민의 상징』번역에 주목하여」,『중국학논총』, 제40호,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3.
손지봉,「루쉰(魯迅)의 번역활동과 번역방법 연구 — 경역(硬譯)을 중심으로」,『통역과 번역』, 제16권: 제2호, 한국통역번역학회, 2014.
이보경,「루쉰의 번역관과 비균질적인 세계의 발견」,『중국어문논역총간』, 제36호, 중국어문논역학회, 2015.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魯迅, 梁實秋, 硬譯, 階級性, 飜譯論爭
	영문	Lu Xun, Liang Shi-Qiu, rigid translation, class character, discussion on translation

A Study of the discussion on translations from Lu Xun and Liang Shi-Qiu

Lee, Yeo-Bin

Lu Xun (1881-1936) and Liang Shi-Qiu (1903-1987) are famous for their discussion on translations from the late 1920s to 1936. The two first had a heated discussion on Lu Xun's 'rigid translation', and the focus of the discussion has shifted to reveal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class of literature. Lu Xun used a very stubborn translation method of rigid translation to achieve the purpose called enlightenment, and Liang Shi-Qiu regards this Lu Xun's rigid translation as an excuse to conceal his inability. Thus, Lu Xun criticizes Liang Shi-Qiu's writings and poses a problem of his class.

On the other hand, recognizing that there is a shortage in Chinese as a translation language, both of them thought that the grammar of Western languages could complement Chinese.

However, the solution that each of them claimed was totally different.

Just as Lu Xun had always played a role as a revolutionist, he hoped that Chinese would be reformed in a radical way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even the Chinese way of thinking would be reformed.

On the contrary, like the claim that literature emphasized in his personality theory should function as literature itself, not functioning as any means, Liang Shi-Qiu argued that the translation itself must be faithful to the function of helping the reader's understanding and did not want it to be changed for other purposes.

In conclusion, a variety of critical mind caused by the translation debate of the two people can be said to have a lot of implications for today's literary world.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이여빈 / 李如彬 / Lee, Yeo-Bin		
	소 속	순천대학교 중어중문학과		
	Em@il	sjseraph@daum.net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7년 07월 31일	심 사 일	2017년 09월 08일
	수 정 일	2017년 09월 15일	게재확정일	2017년 09월 25일